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韓日관계, 반전은 가능한가" 학술대회 30일 개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입력: 2012.10.29 18:54:14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문정인)은 다음달 1일 '한일관계, 반전은 가능한가? 김대중-오부치 미래파트너십 선언의 함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김대중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0월8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수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이 선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한 바 있다.

문정인 관장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전략의 원칙과 실재를 살펴보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의 함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김대중과 한일관계-회고와 전망'이라는 소주제에 대해 김상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발제(김대중의 대일본 전략-그 인식적 기초와 함의),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의 발제(일본이 보는 김대중-1998년 한일 미래파트너십 선언을 중심으로) 등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오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가한다.

10여분간 휴식 후에 '새로운 한일관계:반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두번째 섹션에서는 박준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객원교수의 사회 아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의 발제(일본의 시각에서),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의 발제(한국의 시각에서)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두번째 섹션의 토론 참석자는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명예교수, 오영환 중앙일보 전략기획부장, 이낙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다.

오후 4시20분부터는 문 도서관장의 사회와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명예교수의 '한일관계와 김대중'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참석자 전원 토론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도서관이 최근 출간한 '한일관계와 김대중-민주주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출판기념회도 동시에 개최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